

AAHA CONFERENCE 25



특 집

다시 찾은 AAHA CONFERENCE - 24년 만의 여정



정인성

로알동물메디칼센터 대표원장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장
AAHA-KVMA 인증위원회 위원장
jung45457@hanmail.net

2001년, 한국에는 1,500여 개 정도의 동물병원이 개원을 해 있었고, 반려동물 문화가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였던 시절, 저는 처음으로 미국 AAHA(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미국동물병원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수의사 인생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자, 동물진료 철학을 새롭게 세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AAHA의 체계적인 동물진료 프로토콜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마취와 수술, 감염 관리, 예방의학, 그리고 동물병원 내 인사·노무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체계는 단순히 '잘 하는 동물병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병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이자 힘이었고, '우수한 동물병원'을 만드는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때의 배움은 곧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물진료의 세부 과정이 표준화되고, 직원 교육과 동물병원 관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AAHA의 철학은 제 병원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흐른 2025년, 반려동물병원이 4,200여 개에 이르고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7,900여 명에 이르는 지금, 저는 다시 AAHA Conference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의사들과 함께, KVMA(대한수의사회)와 AAH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동물병원 인증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AAHA의 글로벌 파트너이자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마주한 AAHA의 현장은 여전히 따듯했고, 그 속에는 변함없이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이 살아 있었습니다. 24년 전 낯설고 놀라웠던 그 체계가 이제는 저에게 익숙한 언어가 되어 돌아왔고, 그 긴 시간의 여정이 하나의 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묘한 몽클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학회 참석이 아니라, 한국 수의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로 올라서는 또 하나의 이정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일차 - 인천에서 미국 시카고까지 -----



출발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주한 12명의 동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의 해외 학회를 향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001년, 홀로 미국으로 떠났던 첫 여정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수의사 대표단**으로 함께 초청을 받아 **세계 무대에 선다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첫날,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고 현지인에게 추천 받은 러시 스트리트의 **PIZANO’S 레스토랑**에서 두꺼운 버터 도우에 층층이 쌓인 진한 치즈와 소스가 듬뿍 있는 시카고 딥디쉬(Deep-Dish) 피자라 민생고를 달랜 후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 PIZANO'S 피자



▲ 14여 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시카고 오페어 공항 단체사진

이후에는 시카고강을 따라 도시의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는 **리버크루즈 투어(Architectural Cruise)**에 올랐습니다.

미시간 애비뉴와 시카고강이 만나는 선착장에서 탑승해 약 90분간 이어진 투어는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며 시카고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품은 역사와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제각각이듯이 시카고의 빌딩들도 하나같이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되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강물, 리버워크를 따라 잔디밭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은 '바쁜 도시 속의 여유'라는 시카고만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 Chicago Architectural Cruise Tour

긴 비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저녁에는 또 다른 현지 맛집인 Chop Steak House를 찾았습니다. 두툽한 스테이크와 와인 한 잔으로 여독을 달래며, 다음날부터 시작될 공식 일정—AAHA 인증을 받은 시카고 지역 동물병원 견학—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동물병원도 24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듯, 미국의 동물병원들 또한 예상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국 동물병원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하루의 마무리를 한층 뜻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Chop Steak House

미국의 동물병원을 24년 동안 방문해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AAHA 인증을 받은 동물병원과 받지 못한 동물병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되어 기대감이 한층 더 했습니다.

2일차 - 시카고 병원 탐방과 우정의 밤 -----



둘째 날 아침, 호텔 헬스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학회 일정의 첫 방문지는 **시카고 West Loop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4명의 수의사가 운영하는 도심 속 소규모 동물병원이었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도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한 세심한 동선 설계와 진료 흐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방 진료, 백신, 치과 관리, 수술, 진단 등 반려동물 진료 전반을 아우르며,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미리 협약 된 동물병원으로 즉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약 진료를 기본으로 하지만 당일 진료 요청도 유연하게 수용하며, West Loop 지역 내 3~4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체계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병원의 청결도였습니다. 병원의 바닥, 벽, 천정 등 모든 공간의 청결도가 상당히 우수했으며 병원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 Chicago West Loop Veterinary Care Streeterville(처치실)



▲ Chicago West Loop Veterinary Care Streeterville(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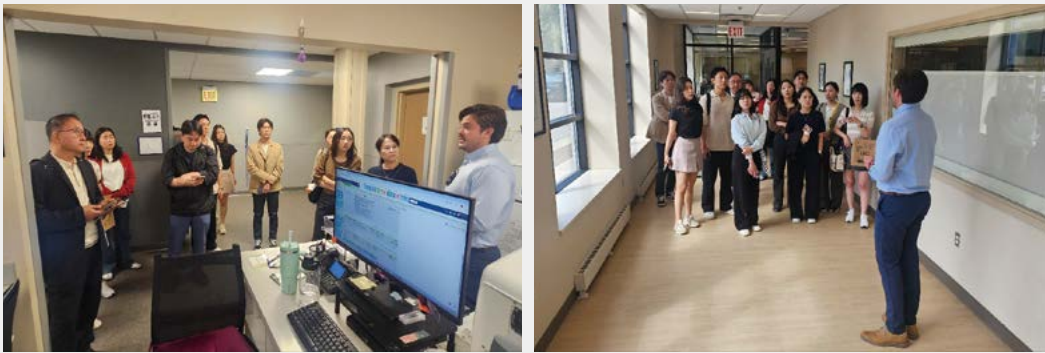
▲ Chicago West Loop Veterinary Care Streeterville(로비)

다음으로 방문한 MedVet Chicago Veterinary Medical & Cancer Center는 시카고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협진형 동물의료센터로, 규모와 전문성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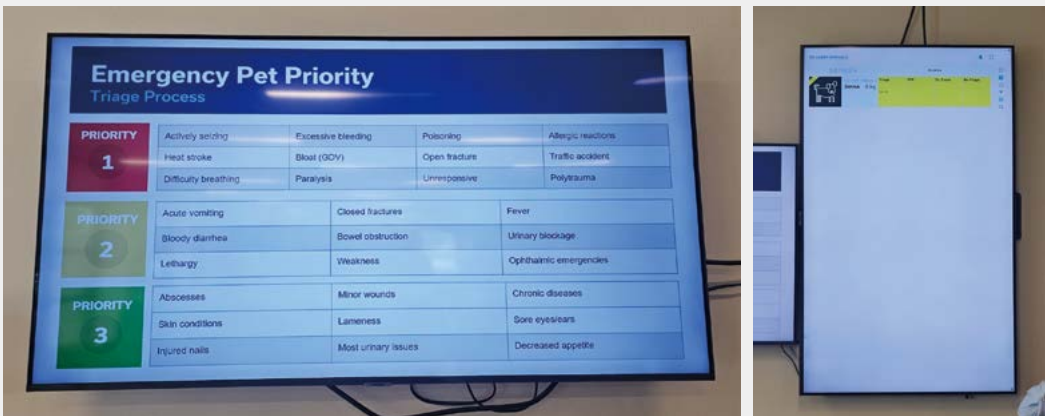
▲ MedVet Chicago Veterinary Medical & Cancer Center

수의사는 70여 명, 테크니션은 200여 명, 관리직은 80여 명, 진료실은 25개가 넘는 대형 규모였습니다. 이곳은 응급의학과 종양학을 포함해 마취·통증관리, 심장학, 신경학, 내과, 안과, 방사선 종양학, 비뇨기과, 재활·스포츠 의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며 약 6,000평이 넘는 규모의 시설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사선 종양학 분야의 인증과 트라우마 센터(truma center) 지정 등은 미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전문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MedVet Chicago Veterinary Medical & Cance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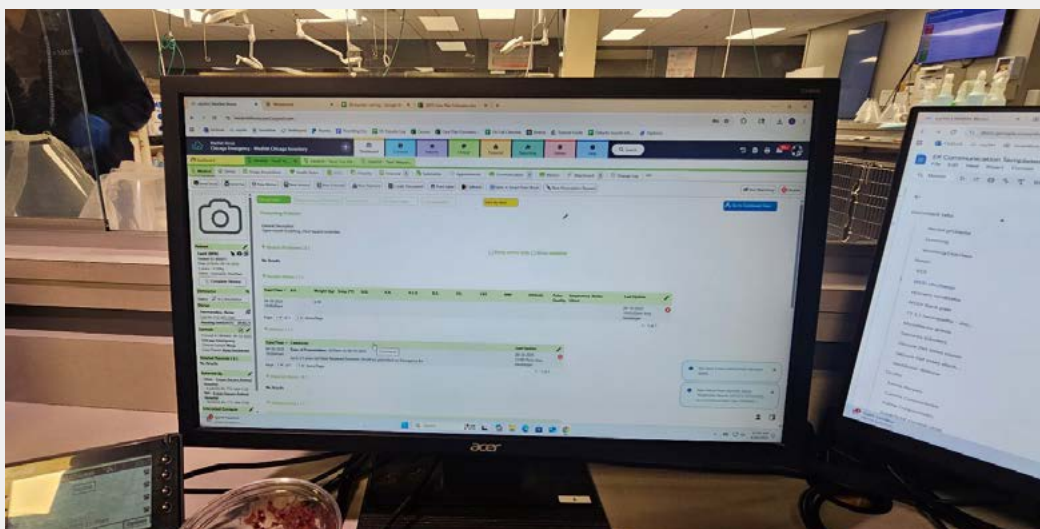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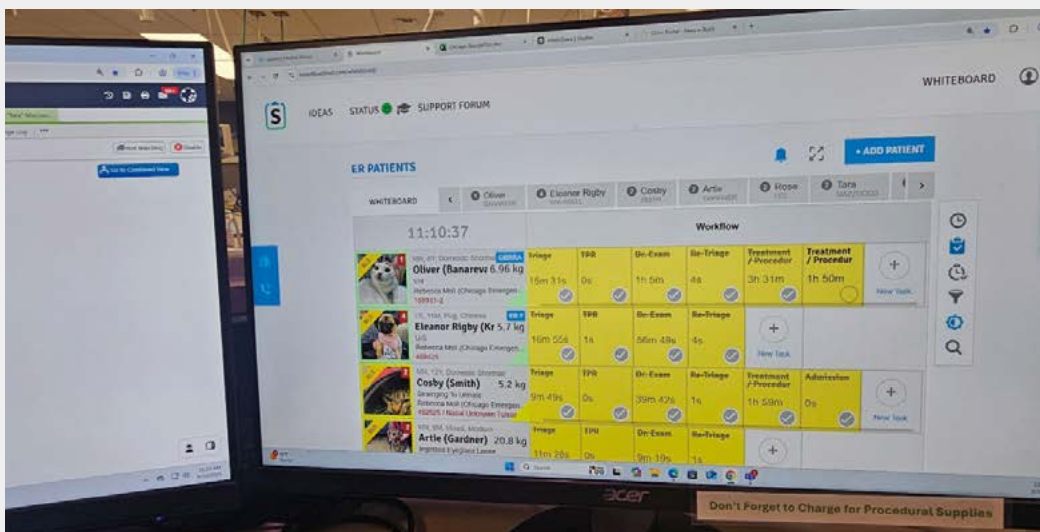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이런 전문 진료과 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한국 동물병원들도 미국에 못지않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자랑스러웠고, 국가와 제도가 달라도 '환자를 중심에 두는 진료 철학'은 동일하다는 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 MedVet Chicago Veterinary Medical & Cancer Center(차팅 시스템)

이 병원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AAHA 인증 기준이 병원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 진료 후 보호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 내원 시기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전자차트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 바이탈이 측정될 때마다 자동으로 기록이 업데이트되어 하루의 상태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각종 지침과 프로토콜은 병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수시로 업데이트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MedVet Chicago Veterinary Medical & Cancer Center(차팅 시스템)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기준을 “문화”로 만든 병원 운영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시카고의 명물 중 하나인 ‘Portillo’s 핫도그’를 맛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시카고에 도착하는 날, 가이드가 말하길 시카고에서 맛봐야 할 3가지 음식이 시카고 피자, 시카고 스테이크, 시카고 핫도그라고 했습니다.

이후 뮤지엄 캠퍼스 인근의 리버워크를 따라 산책하며 시카고의 가을을 느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Y자 형태로 가로지르는 미시간호는 마치 바다처럼 광활했고, 도시를 비추는 끝없는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미시간호는 북미의 5대호 중에 하나로 시카고의 ‘유리빛 심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잔잔한 바람 속에 펼쳐진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은 서울의 한강과는 또 다른 고요한 도시의 리듬을 보여주었습니다.



Portillo's Hotdog



시카고 미시간호(Lake Michigan)

시카고 2일차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AAHA President's Reception이 시카고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고, 한국 대표단 전원이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AAHA 회장단과 CEO, 이사진이 참여한 첫 대규모 공식 행사로, 한국 대표단은 AAHA 회장단과 CEO, 이사진과 한 명씩 직접 인사를 나누며 한국형 동물병원 인증 프로그램과 한국 수의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여의 만남이었지만, 깊은 교류의 순간이었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AAHA President's Reception

President's Reception을 마친 뒤, 한국 대표단은 근처의 “Crushed by Giants Brewery”로 자리를 옮겨 매장에서 생산해 탱크에서 직접 탭으로 제공되는 현지 수제 맥주 한 잔씩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카고의 밤공기 속에서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고, 내일부터 시작될 AAHA Conference 본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3일차 - 본격적인 컨퍼런스의 시작 -----



셋째 날 아침, 드디어 **AAHA CON 2025**의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하루 종일의 일정은 10시 개회식을 포함해 다양한 임상 주제 강의들로 뽁뽁하게 채워졌습니다.

- **호흡곤란 환자의 평가:** 응급 상황 대응과 단계별 진단 프로토콜
- **척수 디스크 및 신경계 질환:** 영상학적 접근과 최신 수술 기법
- **개·고양이 만성 비루 관리:** 장기적 관리와 보호자 소통 중심의 프로토콜



▲ AAHA Conference 2025 개회식



▲ AAHA Conference 2025 개최식

이번 컨퍼런스의 강의들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 진료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강의 중간중간 참가자들의 질문이 활발히 이어졌고,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연자와 청중이 함께 토론하며 지식을 나누는 열린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강연자가 질문이 있냐는 물음을 하기도 전에 청중들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임상 주제 외에도 수의사뿐 아니라 테크니션과 병원 스태프를 위한 교육 세션도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 간 소통법, 보호자 응대, 병원 내 리더십 개발 등 동물병원의 운영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강의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었으며, 주별로 다른 미국의 법규를 고려한 규제 의약품 관리 및 법규 준수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AAHA 동물병원 인증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리퍼럴(진료 의뢰) 병원 가이드라인 활용 강의가 관심을 모았는데, 아직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한국형 동물병원 인증제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 John Hancock Center의 360도 전망대

강의가 끝난 뒤에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시카고의 대표 명소인 John Hancock Center의 **360도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 위에서 내려다본 시카고 전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분주했던 하루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들른 **해리포터 스토어**에서는 학회 일정 중 잠깐의 여유를 즐기며 동료들과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저녁은 인근의 야키니쿠 일식당에서 동료 수의사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강의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나누며, 한국의 수의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학문과 사람, 그리고 경험이 어우러진 이 하루는 AAHA 컨퍼런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 시카고 야키니쿠 일식당

4일차 - 특별한 재회와 새로운 통찰



넷째 날 아침 세미나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재회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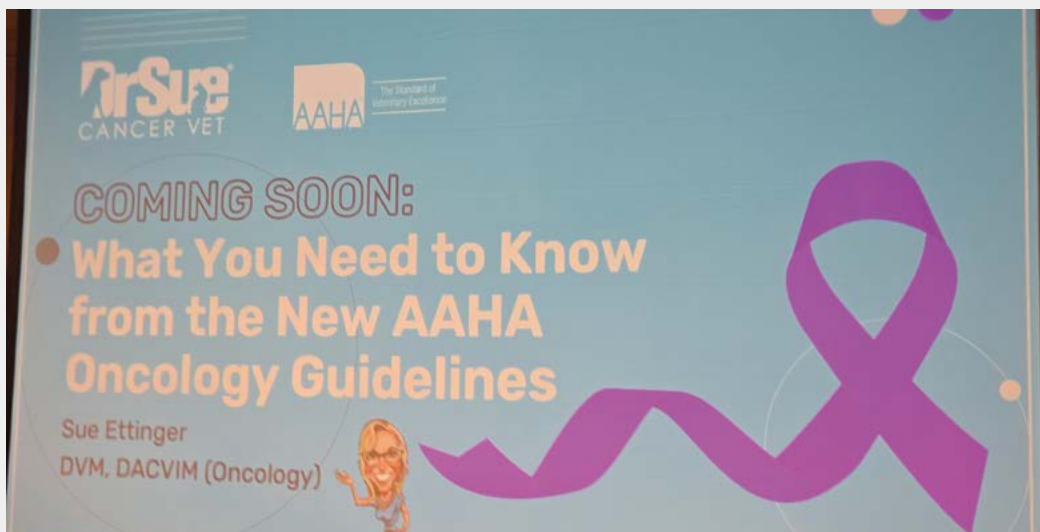
2024년, 한국 최초로 AAHA 한국 동물병원 인증을 획득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본원을 평가했던 AAHA 동물병원 인증 평가관 Jessie Wu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Jessie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동물병원 인증을 담당하는 글로벌 평가관으로, 그녀와의 재회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남겼고, 짧지만 따뜻한 재회 속에서 서로의 노력과 발전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참석한 주요 세션은 “2026 종양 치료의 새로운 변화(New Directions in Oncology 2026)” 였습니다.



▲ AAHA 동물병원 인증 담당자(JESSIE WU)



▲ AAHA Conference 2025 : What you need to know from the new AAHA oncology guidelines 강의

연자인 Sue Ettinger 박사는 수의종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암 진단과 치료, 림프종 관리, 종양학적 예후 평가에 관한 연구와 강연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강의를 단순히 최신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 등 종양 치료의 다양한 옵션에 대한 최신 권고안과 그 개정 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분자진단기법, 바이오마커, 정밀의학 기반 치료법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수의종양학이 수의학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인 만큼, 그 흐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앞으로 한국 임상 현장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AAHA 컨퍼런스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진료 보조 도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특히 병원 운영 자동화와 고객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후 3시에는 2층 Old Town Room에서 **AAHA 이사진과의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과의 만남에서는 양국의 동물병원 인증 방향, 파트너십의 지속성,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증 받은 동물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줄 것과, 향후 AAHA Conference에서 한국 등 동물의료체계가 미국과 다른 국가의 동물병원 참가자들을 위한 교육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AAHA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인증동물병원 수의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해 줄 것 또한 요청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동물병원 시스템과 수의사 역량에 대한 AAHA의 관심과 기대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AAHA Board Meeting



▲ AAHA Board Meeting

하루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에는 Trader Joe's에서 간단히 쇼핑을 하고, 호텔 근처의 'STK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시카고 강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낮의 활기찬 도시와는 또 다른 고요하고 세련된 시카고의 밤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아키텍처 크루즈에서 봤던 낮의 시카고가 역동적인 도시의 얼굴이었다면, 이날 밤의 시카고는 잔잔한 물결 속, 불빛 속에 자신만의 리듬을 지닌 성숙한 도시로 물속에 투영된 강철의 너울이 온화하고 투명한 숨결로 느껴졌습니다.



▲ 시카고 야경

5일차 - 시카고의 마지막 하루 -----



시카고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갑작스레 쏟아진 비와 천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천천히 하루를 열었습니다.



▲ AAHA Conference 2025 폐회식

마지막 날에도 컨퍼런스 강의를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폐회식에서는 내년 AAHA Conference 개최 일정과 장소 발표, 그리고 차기 회장의 인사말로 이번 학회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의 기조 강연은 ‘Managing Complicated People Strategies(복잡한 사람과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저자이자 연사인 Ryan Lee가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해와 연결, 관용, 태도, 그리고 기대치의 조절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조직 문화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연결하며, 나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개발 강의를 들으니, 마치 수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던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AAHA Conference 2025 주요 내용 요약

• 임상/동물의료

- 내과 진단, 치료, 수술, 중환자 관리, 신경학, 독성학, 응급 외과 등
- 특히 일반 동물병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긴급 수술 케이스 처리 전략”, “진단 알고리즘 활용법” 같은 실용 중심의 강의 포함

• 동물병원 운영/조직 관리

- 팀 구성 및 역할 활용(Team Utilization)
- 비즈니스 전략, 병원 비전/미션/가치관(VMPV) 정립
- 직원 갈등 관리, 소통 기술, 리더십, 조직 문화 구축 등

• 동물병원 문화 & 인력 관리

- 직원 간 긴장/갈등 조율, 인간관계 관리, 심리적 안정감 구축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팀 문화 형성 등

• 전문 주제/특수 분야

- 독성학(Toxicology) : 자주 오해되는 독성물질, 중독 치료 전략 등
- 신경과/신경학적 진단 접근법 : MRI 없이 진단 추론하기, 감별 진단 전략 등
- 외과/응급 수술 케이스 접근법 : 수술 계획, 안정화, 마취/통증 관리 등

• 기조 강연/전체 세션

- 개회/폐회 강연으로 테마 통합 제시
- 디지털 전환, 전통과 혁신의 조화 등 주제 포함
 (“Weaving Tradition into Veterinary Medicine's Digital Future”)



강의가 끝난 후,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오후에는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을 찾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클로드 모네의 <건초더미 시리즈>,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파블로 피카소 <높은 기타리스>,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등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폭 속에 담긴 빛과 색의 흐름은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성을 조용히 깨우는 듯했습니다. 예술의 언어가 말없이 전하는 위로 속에서, 이번 여정의 마지막 하루가 한층 더 깊이 있는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Joe's Seafood Restaurant

저녁에는 그간 육류 위주의 식사에서 벗어나, 현지인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Joe's Seafood**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겼습니다. 마지막 날답게 대화도 한층 더 여유로웠고,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가라앉자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 자리를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시카고의 토요일, Andy's 재즈클럽에서 라이브 재즈를 들으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은은한 색조의 조명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색소폰 선율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드럽게 닫아주었습니다. 시카고의 밤공기 속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Goodbye, Chicago. See you next year”



▲ Andy's Jazz Club

한국으로 돌아오며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정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긴 비행 끝에 월요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5박 6일간의 여정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해외 학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렇듯, 다시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묘한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AAHA 컨퍼런스는 24년 만에 다시 찾은 자리였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단지 '오랜 세월'이 아니라 저 자신과 한국 수의계가 함께 성장해 온 여정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저에게 있어 성찰과 재도약의 시간이었고, 강의실에서, 동물병원 탐방에서,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와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이라는 AAHA의 철학이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층 넓어진 시야와 새롭게 다져진 열정으로 진료실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순간들은 다시 현실 속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경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뿐 아니라 한국 동물병원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동물병원들이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여정은 그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jung45457@hanmail.net 